《한국추상미술의 역사》전 개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한국추상미술의 역사》전이 7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된다.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의 앵포르멜 운동부터는 최근의 추상미술 전시와 단색화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로 이를 통해 한국추상미술의 흐름을 개괄한다. 이번 전시는 추상미술 관련 단행본, 도록, 팸플릿, 전시 기사, 평론, 포스터, 사진 등 실물자료와 작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 성과물은 단행본 『한국추상미술의 역사』에 정리되며, 전시 기간 중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Interview ——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인터뷰 백지홍 편집팀장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미술자료박물관이 이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의미 있는 전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2014년 11월에 이전 했고, 그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재개관전인 《김달진 아카이브 스토리》(3.12~5.31)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의 대표 전시는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7.24~10.24)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대안공간까지 건물 도면,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번 《한국추상미술의 역사》전은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추상미술의 역사를 다뤄보자고 결정하고, 관련 자료, 참고문헌 등을 1년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시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게 발굴한 포스터 같은 자료들이 전시장에 못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넣을 수 있는 책자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자료로만 전시하면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기하학적인 작업이나 드로잉 등 주제와 관련된 작품 8점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박물관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제 작품을 보여주고도 싶었습니다. 전시와 연계해서 특강도 진행됩니다. 전시기간 중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책자에 글을 쓰신 서성록, 윤진섭, 김성호 선생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날 전시를 보고 강연까지 들으면 한국 추상 미술 역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다 보니 자료 정리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1957년부터 2016년까지 60년이라는 긴 기간을 다룹니다. 관련된 자료나 정보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의 전시로 보여주려 하니 핵심만을 모아야 했습니다. 지난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를 자체 평가 했을 때 '박물관,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을 한 번에 다루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공간별로 나누는 편이 나았겠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 전시도 또 한 덩어리로 진행되었어요. 전시를 하고 보니 연대기별로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전시를 통해 앞으로 심화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범위를 좁힌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에 자료가 정리된 책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추상미술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저는 전시에서 자료를 보여주는 것보다 학술적인 책을 잘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책자에서 추상미술 1세대는 서성록, 단색화 부분은 윤진섭, 80년대 이후 추상미술은 김성호 선생님께 각각 글을 부탁드렸습니다. 모두 좋은 글이지만 특히 김성호 선생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술계가 다원화되면서 추상 미술의 흐름이 분명 존재함에도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린 김성호 선생님의 글을 보면 추상의 넓은 분야를 나름대로 구획하여 잘 정리했습니다. 세분의 필자 외에도 미술계 전문가 20인에게 한국 추상미술에 대한 설문을 받았는데 최경애 학예사가 잘 정리해 주었어요.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 당대 미술계의 논점들을 정리하여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연표 등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1차적 정리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죠. 이번 연표도 앞서 1957년부터 1991년 까지 45년을 정리한 『현대미술』 연표를 보완 한 것입니다.

미술전문가 20인에게 설문 받은 것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각자 답변의 이유를 적다보니 참여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을 통계 내면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이번 설문은 항목별로 '正'자 표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질문마다 답변의 이유를 남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 원고 개념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단색화 붐이 일다 보니 특정 항목은 단색화 관련 답변이 상위권 전체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설문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에 가장 기여한 대표적 인물 항목에서 방근택 미술평론가가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이론화'를 이유로 5위를 했는데, 일반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잊힌

평론가입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기에 이런 분들이 재발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발견'은 발굴할 기본 자료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기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방대한 자료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방근태 선생님은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광주에서 직접 전시도 열었고요. 세상에서는 잊혔지만, 사진으로 자료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방근택이라는 평론가가 있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지요.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유명한 작가, 일등별이라 할만한 작가는 연구할 자료가 저절로 남게 됩니다. 제가 신경쓰는 부분은 일등별이 빛나는 동안 이등별, 삼등별들은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다가 점차 세월의 흐름 속에 묻힌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들을 틈틈이 꺼내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술사학자 등의 전문가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적 인프라를 튼튼하게 까는 것이죠. 아카이브 작업은 씨줄과 날줄처럼 점차 엮여 갑니다. 방근택 선생님의 경우도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1945–1969』에 개인전 자료가 실려 있는데 그 부분과 이번 설문 결과가 하나로 엮이면서 한국 미술사에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자료는 축적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리될 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전시에서 발굴한 자료 중 하나가 함대정 작가입니다. 당대 드문 프랑스 유학파 작가였는데 39세에 요절하여 기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함대정 작가가 큐비즘 작업을 했다는 것과 1978년도에 회고전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록뿐만 아니라 당대 신문 보도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시된 회화 작품들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료박물관이긴 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꽤 됩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품 중에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이 있을 때는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전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작품 기증의사를 밝히기도 하는데, 사실 선뜻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작품을 받으면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데 저희 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미술계를 보면 작품 보존·보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품 판매가 활발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로 선생님들이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작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다면 작품을 기증하는 이도 많을 것입니다.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수집한 자료기에, 전시를 통해 오래 전에 수집한 자료가 새롭게 조명되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모아서 보존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아트가이드』에서 15회째 진행하고 있는 「한국미술 대표작가 소장 아카이브」는 자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소스를 주기 위한 연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박물관에 찾아오는 이유도 자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재미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은 많이 보지만, 이번 전시에 나온 육필을 볼 기회는 흔하지 않죠. 박서보 선생님은 젊어서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일반적인 전시에서 미술작품을 보는 것과 달리 구석구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카이브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한다면 저희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요구하는 분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화 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속도로 전체 자료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제게 남은 가장 큰 과업이 자료의 디지털화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추가로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아트가이드』의 발행이 성공적이라고 많이 평가하지만, 미술시장이 어려운 만큼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 수익은 줄어들지만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자료의 디지털화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많은 아날로그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천에 연구센터가 생겨 보존기록전문인력(archivist)이 확보되었으니 자료가 잘 관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MS(Archive Management System)' 같은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공급하여 사립미술관 등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아카이브를 위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문제가 있다는데 명분이 충분하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처럼 후발주자들은 아카이브 자료가 없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전시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아서 내년에는 '한국화의 역사'를 총망라할까 합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 그 비평에 대한 비평 등을 그때그때 분류하고 정리해왔기 때문에 기획에 맞춰 전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화에 대해서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작가와 전시뿐만 아니라 각 미술단체들, 논쟁, 사건,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